‘뜻으로 본 한국역사’ 인간·사회 보는 눈 틔워

명사의 서재

⑩ 윤장현 아시아인권위 이사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에서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쓴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항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교시절 독서회 가입…역사·사회·문화 서적 섭렵

“미래 해답 책 속에 있어…책 읽는 광주 만들기 힘쓸것”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윤장현(64)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를 만났다. 책장을 장식하고 있는 3만5000권에 달하는 문학,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이 인터뷰 내내 환한 미소를 감추지 않던 윤 이사와 묘하게 어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윤 이사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올 때면 매번 감회가 남달라요. 지난 2009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개관할 당시만 하더라도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여느 도서관 못지 않은 공간이 됐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정치·사회 변혁의 중심이었던 광주를 다음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도서관들이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윤 이사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마음씨 좋은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후원자’, ‘산악인’, ‘탐험대장’, ‘칼럼니스트’, ‘인권운동가’ 등 손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본업과 부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인 그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끌어들인 것은 무엇일까.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고등학교 시절 책에 빠져 지낸 문과생이었다고 한다.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 때 있었던 학생독립운동단체이자 독서회였던 성진회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독서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름이 ‘피닉스’였는데,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가 됐죠.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민족 등에 관한 서적을 한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이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역사’와 오스트리아의 산악인이자 작가인 하인리히 하러의 ‘티베트에서의 7년’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1930년대 ‘성서조선’에 연재한 글을 모태로 엮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본인의 종교적 시각에서 해석한 한국역사서다. 일관된 시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한국 통사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정의하면서 한국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를 경험 삼아 세계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이 책을 읽고 시대의 변화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안과 의사인 그를 시민단체운동, 때로는 5·18과 인권 운동, 남북 통일, 그리고 복지 운동 등에 힘을 쏟는 계기로 만든 것이다.

그가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에베레스트, 실크로드 등 원정길에 나서고,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후배 산악인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하는 것은 모험에 관한 최고의 명저로 꼽히는 ‘티베트에서의 7년’ 속 장면들이 그의 가슴과 뇌리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의 7년’은 1939년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등반 원정대에 참가한 하인리히 하러가 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억류됐다가 탈출해 티베트에서 머물면서 겪었던 모험과 역경을 쓴 책이다.

그는 “‘뜻으로 본 한국역사’가 내가 세상과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책이라면 ‘티베트에서의 7년’은 아직까지도 히말라야, 차마고도 등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유인으로서의 로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윤 이사의 책상에는 ‘신좌파의 상상력’으로 유명한 국제 사회운동 연구자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책 2권이 놓여 있다.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항쟁들(Asia’s Unknown Uprisings)’ 1·2.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이 책에서 동학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3·1운동, 한반도 분단, 4·3 제주항쟁, 4·19 혁명, 5·18 광주항쟁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등 한국 근대사 100년을 아우른다. 2001년 5·18 연구소 객원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광주의 오월을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할 정도로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학자다. ‘베리타스, 하버드의 진실’을 제작한 고 신은정 감독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에서 5·18 전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기록했어요. 해외 학자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5·18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2권에서는 아시아 각국 항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앞으로 광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광주가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책 읽는 마을 광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힘을 쏟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윤 이사는 아이안과 대표원장으로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5·18 기념재단 창립이사,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 아름다운 가게 전국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미래포럼 상임대표, 광주·전남 히말라야클럽 회장, 한국YMCA연맹 이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꿈만 꾸는 여행자에게

“아마도 (파리여행은)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가 죽어갈 때 오늘 본 잔상이 떠오를 것 같다.”

팔순을 앞둔 노(老) 탤런트 신구(78)는 파리 에펠탑과 샹젤리제거리를 둘러보고 만감이 교차한 듯 나지막하게 말한다. 그의 말 속에는 젊은 시절 먹고 살기에 바빠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다가 (가볼 만하니까)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이 짙게 배어있다.

자칫 재미라고는 없을 것 같은 할배들의 고된 여정이 화제를 모으는 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진솔한 일상의 모습 때문이다. 최고령 카리스마를 지닌 이순재, 따뜻하고 다정한 신구, 무심한 듯 할배들을 챙기는 박근형, 떼쟁이 막내 백일섭이 낯선 여행지에서 맞닥뜨리는 불편과 위험을 (서로 배려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행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익숙하고 편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진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자신과 ‘만나는’ 것 말이다. 그로 인해 힘들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부딪혀가면서 새로운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기 때문이다.

‘할배’ 4인방 이순재(80), 신구(78), 박근형(74), 백일섭(70)과 ‘짐꾼’ 이서진(43)의 유럽 배낭여행기를 다룬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할배’의 이야기다. 이달 초 첫선을 보인 ‘꽃보다 할배’는 케이블 TV로는 대박에 가까운 4.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 몰이중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목과 달리 할배들의 유럽 여행은 ‘꽃놀이’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에게 여행은 낭만이지만 노인들에겐 위험이란 말처럼 고난의 행군, 그 자체다. 팍팍한 다리를 이끌고 무거운 짐을 끌거나 ‘10년 동안 걸을 만한’ 거리를 하루종일 걷고 또 걷는다. 비좁은 숙소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물 설고 낯선’ 타국에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여행을 떠난 순간 이런 불편과 고행쯤은 각오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게 막상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계획과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늘 꿈만 꾸는 여행자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모처럼의 여름 휴가, 이번엔 망설이지 말고 잠시 일상에서 훌훌 벗어나 보면 어떨까. 시원한 계곡이건, 바다 건너 외국이건, 아니면 한적한 시골이건 상관없다. 우리에겐 ‘꽃보다 할배’ 들이 부러워하는 젊음이 있지 않은가.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이춘배 시인 서사시집 ‘하얀강 푸른별’ 출간

서정시 위주의 시단에서 서사시를 다룬 시집이 출간돼 화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춘배 시인(64·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펴낸 ‘하얀강 푸른별’(한림)은 단행본 서사시집이다. 서정시 홍수 시대에 이 시인의 시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시집의 제재는 근원적 우주에서부터 현대, 미래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우주과학,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인류문명의 거시적 전반을 비판적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하얀강 푸른별’은 우주 역사인 ‘하얀강’과 생명의 터전인 대지 ‘푸른별’이 엮는 파노라마를 인간의 긍정적, 부정적 단면과 연계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자외선은 산소의 킬러라네./ 자외선이 쪼개버린 반쪽이 산소/ 붙임성이 좋아서 옆에 있는 온전한 산소분자에 들붙어/ 오존을 만드네….”

(‘생명의 탄생’ 중에서)

시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낳은 자연파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즉 인간의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인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본다. 시의 행간을 따라 읽다보면, 언뜻 18세기 과학과 시의 조화를 추구했던 프랑스 볼테르의 시풍이 연상된다.

시인은 시집 말미에 붙은 ‘시인의 말’에서 “사람 중심의 가치체계가 소유와 지배를 추구하게 했으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며 “인간이 자연과 화합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명중심 사회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주민과 함께하는 인권교실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10월까지 6차례 강좌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는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첫 강좌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기념사업회 교육실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인권교실’을 연다.

첫 강좌에서는 정채웅 변호사가 ‘국제인권법과 이주자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이철우 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8월23일·이주노동자와 인권),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9월6일·이주아동의 교육권), 소모뚜 버마 이주인권활동가(10월4일·난민 무국적자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안진 전남대 교수(10월18일·결혼이주민과 인권)의 강좌가 진행된다.

정채웅 변호사

합수윤한봉기념가업회는 강좌가 끝나면 ‘지역공동체 속에서 이주민 인권활동의 실천과제 도출’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비 무료. 매 강좌 오후 6시30분 시작. 문의 062-514-0528. /김경인기자 kki@